

캐디피 15만원 시대 오나... 골퍼들은 봉?

제주지역 국민연금 월수금액 53만5000원 전국평균보다 낮고 가장 높은 울산보다 22만원 적어

이달부터 몇몇 골프장에서 캐디피 2만원 인상
“곧 다른 골프장 확산 예상...노캐디 등 확대해야”
일부 골프장선 최근 로봇캐디 도입 운영해 눈길

제주지역의 골프장 캐디피가 또 한 번 오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8홀 기준 13만원이던 캐디피를 15만원으로 인상한 골프장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한 골프 인구로 그린피가 크게 인상된 데다 캐디피까지 오를 조짐에 골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본지 확인 결과 블랙스톤cc와 롯데스카이힐제주cc는 이달 1일부터 캐디피를 15만원으로 2만원(15.4%) 인상했다. 또 앞서 5월 16일부터 핀크스cc도 15만원으로 올렸다. 캐슬렉스cc는 이달부터 14만원으로 올렸다. 그동안 도내 골프장 캐디피의 경우 한 두 곳에서 먼저 올리면 나머지 골프장들이 금세 같은 수준으로 맞춰온 점을 감안하면 캐디피 인상은 확산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 대중제 골프장 관계자는 “한 두 곳에서 캐디피를 올리면 정보가 금세 공유되고 올린 골프장으로 이직하는 캐디들이 생겨나 어쩔 수 없이 올려왔다”며 “앞으로 소위 ‘명문’ 골프장이라는 곳부터 캐디피가 오르기 시작해 머잖아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디피 인상은 늘어나는 골프인 구만급 캐디 수요가 많아진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 18홀 골프장은 70명, 27홀의 경우 90~100명 정도의 캐디가 필요하다는 게 골프장측의 설명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캐디피가 13만원에서 한 번에 2만원으로 뛰는데 대한 골퍼들의 불만이 크다. 가족이나 도민 골퍼를 입장에선 코로나19로 해외로 못나간 골퍼 수요가 제주로 몰

려오면서 예약이 어렵고 그린피까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캐디 구인난에 오른 그린피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골퍼를 위해 로봇캐디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생겨나고 있다.

롯데스카이힐제주cc는 캐디 구인난을 덜고 셀프라운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8대의 로봇캐디를 도입해 운영중이

다. 로봇캐디는 골퍼백을 싣고 골퍼를 추적하며 이동하는데 페어웨이에도 진입 가능해 골퍼들이 직접 카트를 끄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대여료는 18홀 기준 대당 3만원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로봇캐디는 현재 9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캐디피가 없기 때문에 이용료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아텐힐cc도 지난 5월 8대의 로봇캐디를 첫 도입한 후 반응이 좋아 현재 12대로 늘려 9홀 셀프라운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년층의 2인 플레이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고,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골프장 이용요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캐디를 존중하는 골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골프장측에서는 캐디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캐디제나 운전(드라이빙) 캐디를 확대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89만6094명으로 지난해 동기(75만4816명) 대비 18.7% 증가했다. 도와·외국인 내장객이 58만9258명으로 1년 전보다 23.0% 늘었고, 도민 내장객은 30만6836명으로 11.3% 증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12일 제주시 오션스위트호텔 카멜리아홀에서 열린 ‘제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2022 제주관광학회 하계 학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없어... 관광청 제주 설립을”

제주관광학회 학술 세미나서
김근중 건양대 교수 주제발표

국내 관광 관련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한 국관광청을 제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제주시 오션스위트호텔 카멜리아홀에서 열린 ‘2022 제주관광학회 하계 학술 세미나’에서 김근중 건양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관광청 설립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관광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관광청을 설립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을 보면 일본은 3200만명, 우리나라는 1500만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높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했다”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일본 관광청 조직도를 들어가보니 국토교통성 안에 외청으로 관광청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관광 관련 정부 조직은 구성에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보면

대부분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 집중돼 있고 관광 분야의 비중이 낮다”며 “관광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인식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관광 관련 기관들이 업무가 중복돼 있다. 국가 전략사업에 부흥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청을 만들어 모든 관광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주도내 관광 관련 기관은 (가칭) 한국관광청 제주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역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5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수금액보다 낮고, 가장 많은 울산과는 22만원 차이가 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국민연금 월평균 수금액은 56만68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울산이 월수금액이 75만7100원으로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61만800원), 서울(60만4700원), 경기(59만5000원)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수금액보다 낮고, 가장 많은 울산과는 22만원 차이가 났다.

김희재 의원은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제주 중소기업 7월 경기 전망 ‘호름’

중기 제주본부 조사 결과
경기전망지수 전달보다 7.3p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7월 경기전망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전망지수인 7월 중소기업업감강도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87.7로 6월 대비 7.3p(포인트) 떨어졌다. SBHI는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 4월 78.2를 기록했던 이 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5월 90.0으로 큰 폭 증가한 뒤 6월

에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치인 95.0을 기록했다가 2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업종별 전망을 보면 제조업은 펄프·종이제품, 전기장비 부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1.7p 하락한 75.0로, 비제조업은 건설업, 육상육송·파이프라인 부문 영향으로 1.1p 소폭 떨어진 93.2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분석했다.

항목별로 보면 자금사정(83.0→85.8), 고용수준(88.0→91.5)을 제외한 생산(96.7→71.9), 내수판매(90.0→83.0), 영업이익(89.0→83.0) 전망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정기자

드림타워 외국인 관광객 잦아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잦아터졌다. 12일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15분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50대 싱가포르인이 5736만원의 그랜드 잭팟에 당첨됐다. 지난해 6월 11일 개장한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그랜드 잭팟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시정소식

7월은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22. 7. 16. ~ 8. 1.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2022. 6. 1. 현재 재산의 소유자
- 납부방법
 - ARS(☎1899-0341) 간편 납부
 - 개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고지서 확인)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go.kr), 은행사 인터넷 납부
 -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조기납세자 상품권 추천
- 추천대상 : 2022. 7. 25일까지 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 추천인원 : 103명 /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21~2327),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제74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 계 양 일 : 2022. 7. 17(일)
- 가정에서 태극기의 위치 :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함.
-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겁니다.

- 태극기 구입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760-2046)

2022년 7월 동홍아트데이 '행복 버블 팡팡쇼' 알림

- 공연일시 : 2022. 7. 20.(수) 19시(60분)
- 공연장소 : 동홍아트홀(동홍동주민센터 2층)
- 공연내용 : 마임이스트 이경식의 비눗방울 쇼, 마술, 마임을 접목시킨 공연
- 입 장 료 : 선착순 무료입장(만2세 이상 누구나 입장 가능)
- 공연문의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064-760-4685)

2022년 서귀포시 어린이 창업교실 참여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15(금)
- *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1~2차 각 30명(총60명)
- 운영기간 : 1차 - 8. 6.(토) / 2차 - 8. 7.(일) 기간 중 택 1일
- 운영장소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중정로 86 NH농협은행 2층)
- 주요내용 : 경제·창업 기초 교육 및 모둠별 활동, 모의경매 게임 등
- 참 가 비 : 무료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보험가입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팩스(760-2619), 이메일(nan1110@korea.kr),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812)

제주누리
미등기토지연구소
포지전문

토지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드립니다.

업무안내

01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 드립니다.

02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03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 드립니다.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격시행

2022년 1월 4일부터 기존동지역 묘지도 포함시행!

미등기부동산 지금이 기회입니다!

올해 8월4일까지가 조치법 기한

상문의 제주토박이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1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게 2층)